

11월 4일

레위기 2 장: 이 장은 소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과 고운 가루, 구운 것, 감람유, 향, 그리고 소금을 사용하여 드렸습니다. 이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소제 재료 가운데 한 줌을 손에 잡아 제단 위에서 불살랐으며, 그 불살라진 부분은 예배자를 위한 기념 제물이 되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예배자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오늘의 묵상: 생명의 떡,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복된 교제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족이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스케줄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식탁 교제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관계는 어색해지고 서먹서먹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오손도손 이야기로 꽃 피우는 것은 곧 행복한 가족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소제는 우리가 먹는 곡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일용할 양식, 즉 생계가 걸린 가장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과 교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관심사, 유대감, 친밀감, 애정이 식탁에서 확인되듯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것은 곧 그분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식탁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곡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 건강, 시간, 햇빛, 비, 기후 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물의 일부를 다시 드리는 소제는,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계를 공급하시는 분이 오직 그분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식탁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힘주심의 결과임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요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복된 교제의 핵심입니다.

소제가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 예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이시며,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그의 몸과 피를 영원한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참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참된 양식이며 음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 6:55-57).

우리의 매일의 식탁뿐 아니라 영원한 생계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소제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삶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매 식사 전의 짧은 감사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소중한 식탁 교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된 교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 우리 대부분은 종종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식탁에 먹을 것을 항상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식사 때마다 주님께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감사 기도는 식사를 영적인 교제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해 보세요.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1. 다음 중 소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ㄱ. 고운 가루 ㄴ. 향 ㄷ. 불 ㄹ. 누룩 ㅁ. 기름 ㅂ. 소금

2. 제사장은 소제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2)

3. 소제는 여호와께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2, 9)

4. 소제의 남은 것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3, 10)

5. 소제를 드리는데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11)

6. 소제는 모든 번제와 함께 드려졌고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7. **지극히 거룩한 소제(3, 10절):** 레위기 2장의 소제(grain offering)가 “지극히 거룩한 것”(레 2:3, 10)으로 두 번이나 강조된 이유는, 단순히 제물의 종류(곡식)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가 지닌 본질적 성격과 그 의미 때문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의 의미는 ‘가장 거룩한 것’, 곧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인간이 함부로 만지거나 먹을 수 없는, 특별히 구별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은,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음을, 그 제사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소제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불린 이유는 소제가 피가 없는 제사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곡식, 기름, 유향을 드리는 제사로 속죄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낮은 제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제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피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레 2:2)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즉, 피가 없지만 온전한 마음의 헌신이 담긴 제사였기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불렸습니다. 다른 제사들도 거룩하지만, 소제는 특별히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삶의 열매로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을 가장 순수하게 드러내는 제사였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서 이러한 본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8. **왜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셨을까요?:** 첫째,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제단에서 불살라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시이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거룩하게 처리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섬김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의 생활은 제물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처럼 기업(토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오직 성전 봉사를 통해서만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기업이요, 네 분깃이니라”(민 18:20) 즉,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먹게 하심으로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셋째, 거룩한 제물은 거룩한 자만이 다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 아무나 만지거나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 부정이 옮겨졌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따랐습니다(레 22:2-9). 따라서 제사장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드려진 제물을 먹음으로 그분의 거룩함과 은혜의 공급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이며,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의 제사장들입니다.

9. **일상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 소제는 일상적인 생산물(곡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동물의 피가 아닌 사람의 노동의 열매, 곧 일상과 수고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상의 수고조차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제단 위에서뿐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10. **왜 누룩을 넣지 말라 했을까?:**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죄가 사람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떡 반죽 속에서도 자라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 작은 죄 하나도 우리의 전 생애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는 작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배워 보세요.

11. **소금의 언약:** 소금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소금이 가진 보존의 성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소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보존하고 정화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